

서구 '서창역새축제' 내달 17일 개최

나흘간 영산강변 일대서...예술 경연대회 등 볼거리 풍성 광주아울렛 등 주차공간 마련...30분 간격 셔틀버스 운행

은빛 역새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창역새축제가 다음 달 개최된다.

광주 서구는 22일 "제9회 서창역새축제를 10월17-20일 4일간 영산강변 일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축제는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초대'를 주제로 극락교에서 서창교에서 이르는 4km 구간 역새길에서 펼쳐진다.

해당 구간에는 ▲노을이 머무는 역새길 ▲선율이 흐르는 역새길 ▲착한서구

로 가는 나들이 역새길 등이 조성된다.

행사장 내에는 와인과 핑거푸드를 즐길 수 있는 시크릿 다이닝, 인디언 텐트 등 감성을 자극하는 피크닉존,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놀이터, 자연경관과 예술작품을 함께 즐기는 노을 전망대 등이 꾸려진다.

또 전문가와 아마추어 분야별 역새노을 사진공모전, 잠시 마리를 비우고 힐링하는 '국제 멧돼지대회', 친환경 분필을 사용한 낙서놀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국악 버스킹, 전국 아마추어 예술 경연대회 등도 개최된다.

17일 개막식과 20일 폐막식은 역새밭에 붉은 노을이 머무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또 개막식에는 18개 동 마을합창단 400여명이 주무대 주변에서 '아름다운 나라', '찹피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합창하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주요 참석자들의 '초대 메시지' 이벤트가 펼쳐진다.

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장 일대에서 17인승 전기차를 운영하며 이용료(1회 1천원)는 전액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아울렛,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축제장 주변 대형 주차장을 활용하고 도심에서 행사장으로 연결되는 셔틀버스도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창역새축제는 영산강변 은빛 역새와 붉은 노을 등 천혜의 경관을 만끽하는 도심 속 힐링 축제"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장소, 최고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2년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의 진심', 2023년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의 약속'에 이어 올해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초대'를 주제로 정하며 축제의 연계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주성학기자



광산구, 퇴원환자 재가복지 지원 MOU

관내 병·의원 9곳과 돌봄 대상자 발굴·서비스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주센트럴병원 등 9개 지역 병원과 함께 '퇴원환자 재가복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퇴원환자 재가복지 지원사업은 병원에서 퇴원 예정 환자의 경제적 형편, 신체 및 기능 수준 등을 파악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발굴하면 광산구가 대상자 방문상담을 통해 보건의료 등 지원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센트럴병원(원장 고길석) ▲KS병원(원장 한철)

▲첨단우리병원(원장 김형석)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상용) ▲광주열린병원(원장 서정평) ▲송정사랑병원(원장 문정식)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원장 노세웅) ▲하남성심병원(원장 김석빈) ▲우리동네의원(원장 임형석) 등 총 9개 병·의원이 참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퇴원 후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데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옥근기자



'릭키비키 청년이다' 퍼포먼스 지난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플라자 브릿지 일원에서 '릭키비키 청년이다'를 주제로 열린 동구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임택 청장과 구의원, 청년참여위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남구, '백운광장 청년 MEET 사업' 실시

오는 30일까지 모집...우수 아이디어 5명 각 2천만원 제공

광주 남구가 백운광장 일원을 청년 경제활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가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22일 "백운광장 일대 공실 및 폐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는 '백운광장 청년 MEET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만 19-39세 예비 청년 창업가 30명(팀)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다.

공모전을 통과한 청년 창업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가장 우

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청년 5명(팀)에게는 각각 사업 자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청년 창업가 30명(팀) 모두에게 전문가 멘토링과 포럼 및 창업 교육, 초청 강연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장업을 돕는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에 관한 교육도 진행한다.

신청서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남구 알림 코너에서 '청년 MEET' 배너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성학기자

북구 "청춘남녀 소통 '좋은 만남 공감 토크' 참여하세요"

오는 27일까지 남·녀 15명씩...내달 12·19일 행사

광주 북구는 22일 "다음 달 12일과 19일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열리는 청춘남녀 소통의 장 '좋은 만남 청년 공감 토크'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좋은 만남 청년 공감 토크 행사는 청년들이 소통을 통해 결혼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1989년생부터 1997년생까지의 미혼 청년으로 오는 27일까지 남성 15명과 여성 15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0월 12일 '회차 만남'에서 자기소개, 팀빌딩 게임 및 문화프로그램 체험 후 저녁 파티와 참여자 간 자유 대화 방식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같은 달 19일 '회차 만남'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참석자들의 흥이 오르면 호감도 확인 후 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serene32@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

의는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에 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청년 공감 토크 행사를 통해 선남선녀들 간 아름다운 인연이 많이 맺어지길 바란다"며 "결혼과 출산은 인구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만큼 앞으로 양육·주거 부담 완화 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청년들이 결혼·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복지부장관 표창

광주 동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성과대회에서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 사업을 추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15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사례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취약계층 구강 건강 지키는 따뜻한 행복 동구(구)'로 ▲아동·성인·노인 생애주기별 시행 ▲생활터를 중심으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 서비스 위주 ▲지속적인 구강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재영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